

로마서 13장을 열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써 정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은 선언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13:1)**

성경은 사회질서를 어기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다스리는 정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하기를, '제정된 법이 우리의 의견과 동의될 때만이 복종할 것이라' 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이 사람이 제정한 법을 능가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을 느낍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가이사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는 요구가 정부로부터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는 법이 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믿는 자들은 가이사 황제를 주로 인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여 순교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관원들, 실제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19-20) 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나의 양심에 주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께 먼저 순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들에 관하여는 나는 정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법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자주 질문을 던지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수한 정부를 세우셨다는 말씀인가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진리에 대한 도전을 한 사실은 나에게 흥미로운 일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할 때, 그가 본 큰 신상이 세계를 통치하는 왕국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그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그러나 당신보다 조금 못한 은으로 된 어깨와 가슴을 상징하는 왕국으로 대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못한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로 상징된 왕국으로 대치될 것이며,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를 상징하는 왕국으로 대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90피트나 되는 금 신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 경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메데-파사 왕국으로 바뀐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하는 반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선언하신 말씀을 거역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시며,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통치자를 세우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까지 일곱 기간 동안 정신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그는 광야에 나가 짐승과 함께 살았고,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을 때까지 교훈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가 왕위에 있게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의 기간이 끝이 난 후, 하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진실로 그는 낮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왕국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왕위의 통치자를 세우시는 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치자로 세우십니까?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악한 자가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치자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높은 권세에 복종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13:2)**

당신이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말하는 것은,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13:3)**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면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과속으로 달릴 때에 순경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워 하게 됩니다. 내가 속도 제한 한도에서 운전할 때면, 순찰차가 지나가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과속을 할 때에 후면 거울을 쳐다보니, 뒤에서 약 1 km 거리에서 순찰차가 붉은 불을 켜고 달려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속도 미터를 보고, 속력을 줄이고, 속도제한 내의 속력으로 유지하면서 가슴을 조이고, 조심하게 운전하는 동안 붉은 불을 켜고 오는 순찰차가 지나쳐 갈 때에야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속도 제한 내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되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한 행위를 할 때에,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13:4-5)**

하나님의 자녀로써 법에 순종하는 시민이 되고,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13:6)**

나는 이 말씀에도 동의하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13:7)**

모든 자들이 그들의 바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바칠 세금은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구입한 료렉스 시계를 몰래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쳐야 할 국세를 바쳐야 합니다. 성경은 속이지 않고 세금 보고를 하며,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두려워 할 자를 두려워 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13:8-10)**

예수님께서 하루는 질문을 받았는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며,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가? 라는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모두 이행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실제로 소극적인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등으로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적극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계명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 이 모든 계명들의 중심을 하나로 말한다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대 강령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의 것을 훔치지 않으며, 그를 속이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한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13:11상)**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 올 역사적인 일을 미리 알려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잘 분별하여 깨어 준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어두움의 자녀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도적과 같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13:11하)**

나는 대부분의 교회가 모두 졸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사를 기록한 자가 몇 사람이 되느냐? 두 사람이었나, 아니면 세 사람이었나? 라는 연구에 골몰하다 보니, 그 책 속에 이사가 무엇이냐 말했나? 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여 성경에 대해서 너무 학문적으로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에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여 마태복음을 미화해 보려는 학자의 태도는 사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참담한 행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이 지어내어 성경에 삽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주의적인 대학에서 학자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잠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성경 학자들이 사람들을 잠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제거하는 법을 대법원에서 결정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잠만 자고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공립학교 제도를 점령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잠만 자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아내가 백가피 리더를 지난 주에 주문했습니다. 그 책이 도착하였는데, 그 책의 내용을 나의 아내가 나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국민 학생들이 교과서로 읽는 책인데, 그 내용이 도덕과 진실의 아름다움과 선한 것들에 관한 내용들이 담긴 책입니다.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가까이 계신다, 네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는 등의 내용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아이들에게 도덕과 진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큰 죄를 짓은 것처럼 이 땅에서 위법으로 다루어야 하나요? 이러한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는 잠자고 있었고, 우리가 잘 동안 악의 물결이 홍수처럼 밀려왔고, 음탕한 잡지들이 우리나라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럽의 나라들보다 한 걸음 뒤져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인데, '무엇이든 좋다' 라는 태도가 바로 문제입니다. 서구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하였고, 부도덕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신이 유럽을 가보면, 실제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의 사후의 세대가 있음을 직감할 것입니다. 길거리로 걸어가다 보면, 반그리스도 정신이 곳곳에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깰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13:11-12)**

우리가 얼마나 더 밑창으로 내려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192억 달러를 연방 정부가 빚을 지고, 몇 년을 더 지속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며,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다른 나라들이 빚을 갚지 못할 때, 은행이 몇 년을 더 지탱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밤의 어두움을 말씀하고 있으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줍니다. 밤이 깊고, 이제 밝은 동녘이 터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온 지구를 덮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깊은 밤이라도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애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13:12-13)**

이것들은 모두 육신의 한 부분들입니다. 육신을 좇아 사는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13:14)**

나는 오늘날 악한 영이 이 땅에 침투하여 음탕한 잡지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듯이 음탕한 잡지에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이나 마약 중독과 같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이끌려 가고, 매력을 느껴 빠졌다가, 그것을 떠날 때면,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겠다' 고 결심합니다.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다시금 유혹되어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음탕한 유혹에 이끌려 음탕한 영에 노예가 되어 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장악되어 그것에 희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음화를 요구하며, 그래도 만족치 못할 때에, 계속 다른 형태의 음행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 음화 때문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부도덕한 불륜의 관계를 헬라말로 *koite*라고 해서, 이는 금지된 침상의 욕망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결혼이 근친 간음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혼화 때문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희생이 된 사람들을 볼 때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마지막 때에 사탄의 체계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후 10:4) 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성가시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는 기도와 중보의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의지를 거슬러 사로 잡힌 원수들의 포로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악한 영에게 마음을 열고, 이러한 마귀에 속한 것들에 마음 문을 열면, 마귀가 그 사람의 생활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이러한 흥미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사 왕이 에돔을 향하여 군대를 보내어 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후에 그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인 여호아하스에게 편지하기를, 나와 우리와 한판 싸우자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이 편지에 답하기를, ‘여보시오, 당신이 에돔에 가서 전쟁을 하여 승리를 거뒀으면, 집에서 조용히 승리를 축하하고 즐기십시오. 왜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자초하려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에돔을 치고, 승리한 기분에 말하기를, ‘나오라, 병아리들아, 나와 함께 대면하여 싸우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때에 여호아하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싸우려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아마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시에 쳐들어가서 성벽을 헐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몰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자신에 관한 일 이외에 쓸데 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자신이 관여 하지 말아야 할 곳에 관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써 관여하지 말아야 할 곳에 관여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에게 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이 모두 파괴되는 것처럼, 사탄이 당신의 담을 다 무너뜨릴 것이며, 당신에게는 더 이상 방어 능력이 없어서 사탄의 공격이 올 때에, 당신은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처음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곳에 관여하면, 패배를 당하여 방어의 담이 모두 무너지고, 원수에 대한 방어를 전혀 못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원수의 포로가 되어 당신은 희생된 것입니다. 원수의 손아귀에 포로가 된 자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정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포로로 붙들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묶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시다. 원수들이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명할 때에, 그들은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 위에 케계를 부리는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미줄에 걸려 포로된 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4).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케계를 묶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가려진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놓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러한 정욕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수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도록 중보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으며, 밤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에 놓고 사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치열한 전쟁입니다. 전쟁은 날로 치열해지고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이끌고 가기까지 이 전쟁은 날마다 치열해 질 것입니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날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예, 만일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상하는 삶과 얼마나 정반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인자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도 같다.” 노아의 때에 한 가지 예로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 라고 말씀했다. 그들 자신이 삼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삼가 조심하는 일이 없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